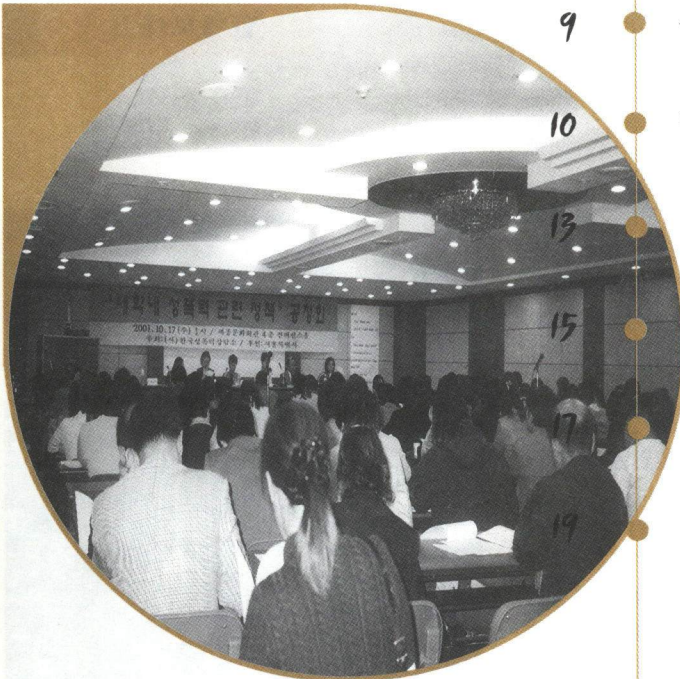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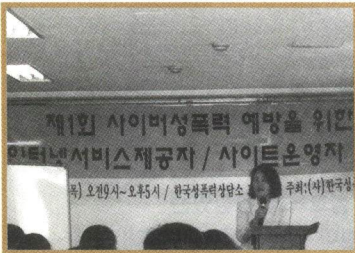


# 나눔터

2001 · 11

제39호



- 2 ● 이런 일을 합니다
- 3 ● 새내기 상담원의 인사  
17기 상담원 교육을 마치고
- 4 ● 여기는 상담실  
성폭력·가정폭력 심터 활동가 심화 워크숍
- 7 ●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 실태 조사
- 9 ● 사이버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사이트운영자 교육

10 ● 대학내 성폭력 관련 정책 공청회

13 ● 기획  
전쟁과 여성

15 ● 성문화 읽기  
어린이에 대한 성착취를 반대하는 국제회의에 다녀와서

17 ● 이런 일을 했습니다.

19 ● 나눔터 게시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1동 951-12 가람빌딩 5층 (135-860 )

일반상담 · 열림터 02-529-4271~2

사무전화 02-576-7128, 576-5513~4 팩스 02-576-7127

사단  
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 이런 일을 합니다

## 상담부

11월 말 성폭력 가정폭력 쉼터 상담 매뉴얼 제작 배포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으로 쉼터 종사자들과 활동가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쉼터의 기능, 운영방식, 프로그램, 연계기관 등을 정리하여 매뉴얼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 성폭력문제연구소

2001. 7 - 2001. 1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교재 개발 및 발간 준비 작업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교재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과  
프로그램 개발 기획회의를 실시하고, 이 내용을 토대로 예방 교육 교재를 11월 말에 발간할 예정이다.  
2001. 11 - 2001. 12 무료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전국 20여개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성평등교육문화센터

제 1회 초등학교 성교육·성상담 교사연수  
지난 여름에 실시하였던 초등학교 성교육 연수를 좀더 보완하여 제 1회 초등학교원 대상  
성교육·성상담 교사연수를 실시하고자 한다.  
2002년 1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실시될 이 연수에는 초등학교 교사를 비롯하여 초등학교 성교육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성평등 교육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이야기될 예정이다.

## 한해보내기

2000 한해보내기 모임에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동안 상담소의 손과 발, 머리와 가슴이 되어 상담소를 움직여준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2001년을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따뜻하고 뜻깊은 자리를 마  
련했습니다. 나눔이, 지킴이, 상담원, 상근자, 자문위원, 이사, 회원, 후원회원, 실습  
생, 봉사생 ...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잔치를 풍성하게 벌여  
봅시다.

1년 동안 자신이 가진 자원- 시간, 지식, 노력을 투자하여 상담소를 일구어온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고, 일속에서 여유없이 만났던 서로를 좀더 따뜻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_\_ 준비물이 있어요. !!!

한해보내기에 빼놓을 수 없는 행사 - 베품시장이 올해에도 열립니다. 아직 쓸만  
한 물건인데 본인에게 필요 없어진 것을 챙겨 오세요. 안쓰는 물건을 치우고 알짜배  
기 물건을 챙겨갈 기회입니다. 그리고 수익금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열림터)에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12월 15일(토) 2시 상담소 교육실로 오세요!!



시간 : 12월 15일(토) 2시

장소 : 본 상담소 교육실

# 17기 상담원 교육을 마치고

이 소 영 (본 상담소, 17기 상담원)

'17기 상담원 교육' 언제 교육을 하나 늘 궁금했었는데, 상담소 홈페이지에 상담원 교육을 실시한다는 글을 보고는 너무나도 반가웠다.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2주간의 교육이 결코 만만치 않았지만, 그동안 성폭력이라는 것에 가져온 나의 궁금증을, 답답함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런건 문제되지 않았다.

몇 년 전 나의 친구가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성폭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성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했고, 스스로에게 물었고, 혼자 그 대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을 안하고 인식하지 못했기에 보이지 않았지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나부터 제대로 알고, 힘이 된다면 행동으로도 옮겨야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해왔다. 그래서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하는 상담원 교육을 받고 싶었고, 드디어 기회가 되어서 17기 교육을 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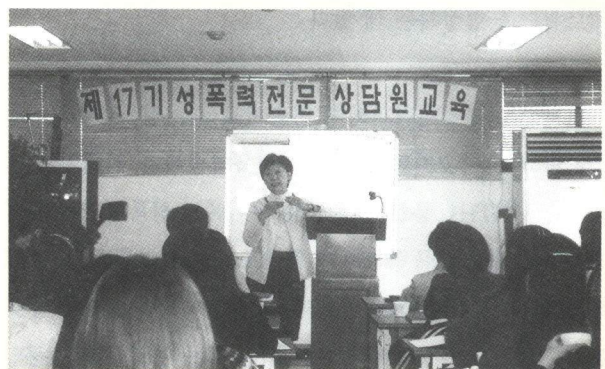
한 시간 한 시간 강의를 듣고, 함께 교육을 받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대로는 제대로 보려고 노력했고, 머리로 마음으로 완전히 이해했다고 믿었던 것들이 완전하지 못했고, 그 중에는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2주간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러한 것들을 꺼내서 지우고 새로운 것을, 제대로 된 지식을 넣는 일은 중요하고도 힘든 작업이었다. 그러면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스스로에게 답답함을 느꼈었다. 하지만 함께 교육받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답답함을 한번에 채우려는 것은 나의 지나친 욕심이라는 생각을 하였고, 하나씩 천천히 채워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게 그리고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2주간의 교육이 끝나고 늘 혼자 고민하고, 혼자 알고, 혼자 행동하는 나이기에 후속교육을 받고 전화를 받는다는 것

이 생각만 해도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지만, 이번에도 혼자 교육받은 걸로 그친다면 이걸로 끝일거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서 신청을 했고, 교육을 받았고, 지금은 전화를 받고 있다.

아직은 전화벨 소리가 낯설고, 두렵고, '상담소입니다'라는 첫마디가 입에 잘 붙지 않았고, 전화를 받으면 그나마 아주 조금 알았던 것들도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전화를 끊고 나면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한 것 같아서 맘이 불편하기만 하다. 그래서 상담전화를 한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고, 활동하시는 다른 분들이 부럽지만 하지만, 상담소로 가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고, 일지를 읽고, 책을 읽으며, 다른 분들께 물으며 배우는 것이 날 즐겁게 하기에 조금씩 자신감을 가져본다. 그러면서 나의 이 작은 실천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힘이나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아직은 모르는 것 많고, 실수도 많지만 상담원 활동이 나에게도 많은 힘을 주는 것을 보면서 오래도록 열심히 활동하리라 다짐해본다.

그리고 함께 교육받은 17기분들과의 만남도 소중히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도 함께 해본다.



# 성폭력·가정폭력 쉼터 활동가 심화 워크

조 중 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열림터 시설장)

본 상담소는 서울여성의전화와 공동주최로 2000년에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으로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였고 이어서 올해에도 <통합적 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한 관련자 교육사업>으로 <간호사와 함께하는 성폭력·가정폭력에 관한 워크>, <서울시내 파출소 경찰들과 함께 하는 성폭력·가정폭력 워크> <서울시내 3개 시범지역 성폭력·가정폭력 관련기관 연계망 형성을 위한 간담회>, <성폭력·가정폭력 쉼터 종사자, 활동가를 위한 심화 워크>(쉼터 매뉴얼 제작 배포), <연계망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워크>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 10월 18, 19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양일간 <성폭력·가정폭력 쉼터 활동가를 위한 심화 워크>이 여성사회교육원 청산교육장에서 실시되었다.

이 사업의 목표는 현장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직접 생활하는 시설종사자들과 프로그램 담당자, 개인 및 집단상담을 담당하는 상담자들에게 시설 내 내담자들의 치유와 성장을 위하여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실시한 후의 변화를 점검하고 반영하여 보다 나은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며, 활동가의 소진을 막고 재충전할 수 있는 재교육과 상담자끼리의 정보교환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있다.

첫날에는 가정폭력피해자 미술치료(김지영, 김예나), 성폭력피해자 미술치료(이순옥), 성폭력피해자 원예치료(김혜란), MBTI를 통한 진로상담(이미혜), 성폭력피해자 성교육(이효숙), 성폭력피해자 학습프로그램(안홍례)을 소개하고 실시 후 내담자의 변화와 성장에 어떠한 효과를 주었는지, 앞으로 발전시켜나갈 할 과제는 무엇인지 그동안 축적된 자료를 제시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유용한 여성주의 의식화 집단상담(황경숙 서울여성의전화 전문 상담위원), 교류분

석이론을 활용한 여성주의 집단상담(배인숙 중부 여성쉼터 시설장), 성폭력 피해자 집단상담(권해수 한국청소년상담원 선임상담원)을 분반하여 실습하였다. 둘째날에는 하루종일 여성주의 계슈탈트 상담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정체감의 5기동 기법, 행복한 경험 기법, 꿈작업 등(이영이 성신여대 심리학과 교수)이 실시되었다.

이 행사의 참가대상은 서울 시내 가정폭력 쉼터(서울여성의전화 중부 쉼터, 은평 가정폭력 쉼터)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한국성폭력상담소, 열림터, 샤론의집) 근무자와 프로그램 담당자, 상담자였으며 이외에도 전국의 보호시설(전주성폭력예방치료센터 디딤터, 마라의샘, 수원여성쉼터, 부산여성의전화 양지터)과 쉼터(한국여성의전화 지부 쉼터), 선도보호시설(평화의샘)에서 참여하였다. 워크에 참가한 활동가들은 교육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보람과 고충을 서로 나누고, 서로 힘을 주고, 더 좋은 상담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앞으로도 시설 활동가들의 연대모임이 고정적으로 이루어져 정보교환과 교류를 활발하게 하면 좋겠다', '재교육과 연구의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 '소정의 교육비를 감당하고자라도 이런 교육이 계속 실시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이를 토대로 11월 말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쉼터 매뉴얼>이 제작될 예정인데 여기에는 쉼터의 취지 및 운영방법, 입소자들에게 지원되는 서비스의 절차 소개, 진행 프로그램의 소개, 관련단체 목록 등이 수록되게 되며 이는 각 시설과 관련단체에 배포되어 종사자와 활동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다음은 이 행사에서 발표된 <열림터 미술치료>를 발췌 소개한다.

## 미술치료

이 순 옥 (본 상담소 열림터 미술치료)

###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나를 사랑하자!

#### 1. 프로그램의 소개

한국성폭력상담소 열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술치료는 근친성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매주 한 회기씩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나를 사랑하자!' 를 제목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지난 해 12월부터 지금까지 매주, 때에 따라 격주로 실시하고 있다.

미술치료는, 외상으로 고통받는 희생자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양육적인 공간' 인 열림터에서, 집단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열린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 2. 프로그램의 목적

근친성폭력에 희생당한 청소년들은 신경적인 손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적 발달 특히 언어적 능력에서 뒤떨어진다. 그 이유는 그들이 언어로 표현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이런 경험들로부터 겪게되는 사회적 심리적인 살해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몸부림으로써, 언어이전의 상태로 상처 입기 쉬운 자신들을 가두어놓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리적인 과정에서 파생되는 영향은 아래와 같은 신념과 행동양상을 보여준다.

##### 첫째, 자존감의 저하

학대받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그들(가해자)이 강하거나 자신이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대를 당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 둘째, 대인관계 문제

인생 초기에 경험하는 나 아닌 다른 인간과의 친밀한 관계



가 신뢰할 만한 것이 못되기 때문에 미래에도 다른 사람들을 믿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 셋째, 감정표현 능력 저하

아동기에 참을 수 없는 학대를 참아야 했고, 대부분의 경우 고통을 표현하면 더 심하게 학대를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훈련이 되어 있다.

##### 넷째, 우울증과 자살

자존감이 낮으므로 삶의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학대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자신이 죽어야만 이 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살을 기도한다.

##### 다섯째, 약물중독

술이나 약물의 도움으로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을 잊고 즐기기 위해 서서히 중독되어 간다.

##### 여섯째, 자신의 상처를 재현하기

수동적으로는 외상적인 기억의 재생, 능동적으로는 끊임 없이 자신을 외상적인 위험상황에 노출시킨다. (권혜경, 2000)

열림터 청소년들 또한 비윤리적인 극심한 폭력의 희생자로서 위와 같은 심리적 위기상황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술치료에서는 혼란스러워 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고 당당한 생존자로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첫째, 심상으로 인한 통합적인 자아를 발견하여 자존감을 높이고,

둘째, 공동작업을 통해, 집단원들 간의 질문이나 칭찬 등과 같은 지지적이고 수용적인 반응을 경험하도록 하여대인관계 문제 해결을 돕고,

셋째, 작품에 대한 관찰과 언어화로 감정표현의 능력을 향상시키며,

넷째, 작품활동을 함으로써 생기는 생생하고 창조적인 에너지로 우울증과 자살충동을 극복하게 하며,

다섯째, 작품활동에 몰입함으로써 현실의 고통을 승화시키는 기쁨을 맛보게 하고,

여섯째, 작품의 탐색으로 외상의 기억을 재생하고 자신의 신념과 행동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통찰하고, 생존자로서의 창조적인 성취감을 경험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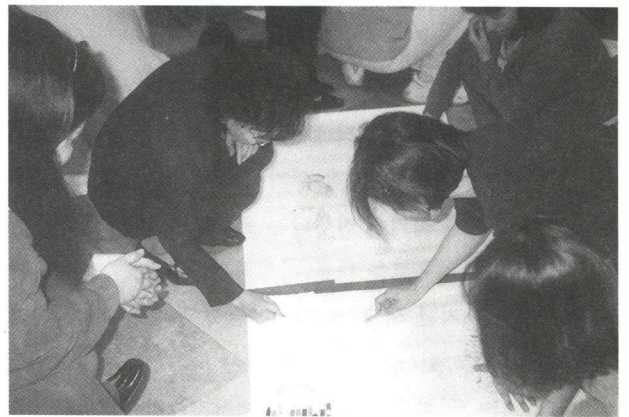
죽음보다 더 절망적인 외상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생존자로서,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나를 발견하고, 타인과의 건전한 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갖게 된 청소년들은, 타인과의 건전한 관계에서 융통성 있는 믿음을 형성하게 되고, 나아가 삶에 있어서의 의미를 창조하여 실천하는 성숙한 사회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진행자는, 자발적인 참여와 자유로운 자기표현이 안전한 공간을 창조하여, 같이 놀며 지지하고 양육하는, 부드러운면서도 확고한 '어머니'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 3. 실시과정

사람들은 생존욕구를 충족하게 되면 삶의 의미를 창조하도록 되어 있다. 미술치료는 생존욕구를 충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창조하기 위해 예술적 표현을 매체로 사용한다. 내담자들은 다양한 표현매체로써 자신의 내적인 심상을 반영하고 그들의 내면을 통찰하여 창조적인 세계를 발견하게 된다. 심상은 모든 감각적 양식 즉, 시각, 청각, 근육운동감각, 후각, 미각, 촉각 등으로 경험할 수 있는데, 미술치료에서 주로 사

용되는 것은 시각적 심상이다.

진행자는 열림터 청소년들이 시각적 심상에 자연스럽게 몰입하고, 자신의 내적인 심상을 자유롭게 표현하여, 긍정적인 자기상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첫째, 심상의 시각화

내면의 소리 듣기, 자기만의 동작, 명상, 침묵, 집단원들의 소리 만들기, 시 읽기, 음악 듣기, 간식 나누어 먹기, 맛사지 해주기, 등의 다양한 표현을 미술작업 전에 하여, 내면의 심상을 시각적 심상에 집중하도록 한다.

#### 둘째, 절차에 대한 언어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각 부분은 서로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이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등의 질문을 보통 세 질문으로 요약하여 작업에 임하기 전에 과제를 주고, 작업이 끝나면 주어진 질문에 따라 작품에 반영된 내면을 통찰하고, 내가 보고 느끼는 세계와 타인이 보고 느끼는 세계를 경험하게 하여, 혼란스러운 내면에 질서를 부여하고, 내면세계를 확장시키도록 한다.

#### 셋째, 작품에 대한 명명화

언어화된 내면통찰을 개념화하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게 하여 창조적인 자기의 힘을 실현하게 하는 발판이 되게 하기 위해, 작업을 하면서 작품의 제목을 생각하도록 과제를 주고, 마무리 과정으로 자신들의 작품에 제목을 붙이도록 한다.



#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 실태 조사

유은주 (본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성폭력 문제 연구소에는 올 한 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의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제조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피해와 예방교육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한국노총과 공동으로 전국 50여 개 제조업체(금속, 섬유, 화학, 식품업체 중심) 여남 노동자 1,67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를 피해 실태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직장내 성희롱 피해실태를 성희롱 유형별로 살펴보면(〈표1〉 참조) 언어적으로는 음담패설(43.5%)이나 회식 자리에서 술 따르기를 강요하는(33.%) 성희롱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각적으로는 불쾌한 시선으로 신체 특정 부위를 쳐다보는 일(24.3%)이, 신체적으로는 손,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일(19.9%)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성희롱을 가하는 행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인 경우가 91.5%, 여성인 경우가 8.5%로 남성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직장 상사(47.8%)나 동료(49.4%)가 많다. 그리고 미혼자보다는 기혼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85.2%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응답자가 여성인 경우의 95.8%가, 남성인 경우의 70.1%가 남성 가

해자에게 성희롱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남성 피해 역시 여성 피해와 마찬가지로 남성 가해자에 의한 피해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가해 행동은 대부분 소수 사람들이 일회적이나(41.2%) 반복적으로(46.9%)로 행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성희롱 피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들은 '스트레스'(66.2%)를 가장 많이 꼽고 있으며 '대인관계 위축'(15.3%)과 '업무 능력 저하'(15.1%)가 나타난다고 답했다. 그리고 '피해로 인해 부서 이동 혹은 직무전환을 고려하거나 퇴사를 고려'한 경우가 3.9%, '해고 혹은 해고 위협을 당한' 경우가 1.1%로 보고되었다. 한편 남성의 경우 별다른 느낌이나 영향을 받지 않았다(50.6%)는 응답이 여성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성희롱 피해가 성별에 따라 다르

게 경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희롱 피해자들은 피해의 원인을 자신의 처신 때문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권력이 작은 자신의 위치(31.3%)나, 성희롱 처벌의 미약함(26.1%)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런 의식이 높았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성희롱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그 발생을 사회 문화적이고 구조적인 것으로 분석하는 분위기가 여성들에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남성들은 여전히 개인의 태도에서 피해가 발생한다(27.5%)는 통념을 지니고 있다.

성희롱 피해가 일어나는 장소는 작업장이 44.7%, 직장내 공공장소가 15.7%, 직장내 밀폐 공간이 1.6%, 회사 사무실이 9.5% 등으로 전체의 71.5%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그밖에 회식이나 야유회 장소에서 25.9%가 발생하고 있었다. 회식자리의 성희롱은 발생 빈도가 아주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가장 불쾌하게 여기는 성희롱으로도 이미 선행연구에서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업무 연장으로 이어지는 회식자리 문화의 변화가 성희롱 추방의 주요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바람직한 대처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응답자들은 '싫다는 의사를 밝히고 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66.5%)를 꼽았다. 이는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통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처방식과 일치하는 답이다. 그러나 실제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들이 그 상황에 대응한 방식은 '그냥 웃거나 농담으로 넘기거나'(41.7%), '불쾌하다는 표정, 화를 내거나 짜증냄'(41.5%)으로 나타나고 있어, 의식과 실천간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상당수 노동자들이 성희롱 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결과이다.

이렇듯 피해자들이 성희롱 행동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흔하게 있는 일이므로 대응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34.4%)와 '관계가 서먹해지고 불편해질까봐'(32.8%)로 나타났다. 이는 성희롱 피해자들이 만성적인 성희롱 피해에 대해 이미 체념한 상태에 있거나, 대부분 직장내 성희

를 문제삼아봐야 득이 될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피해자의 경우 대부분 그 피해가 반복(55.5%)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으로 성희롱 가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 반응을 보인 경우(〈표2〉 참조)에도 상대방이 여전히 성희롱 행동을 한 경우가 32.7%나 되고, 또 성희롱 행동 대신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를 불편하게 한 경우가 20.1%나 나타나 성희롱 피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피해자를 어려움에서 구제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다. 특히 성희롱 피해에 대해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는 구체적인 적극적 대응을 한 경우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희롱 이외의 방법으로 괴롭히는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어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와 구제에 관한 보다 강력한 정책 마련이 요구됨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런 피해자의 대응에 대해 주변인 반응은 가해자를 비난(41.8%)하면서, 피해자가 문제해결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경우(25.7%)가 많지만, 한편으로 문제를 덮어두

고 참으라고 조언하는 비율도 27.0%에 달했으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도 5.5%나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성희롱 피해를 인지한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54.6%) 현상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만 주의나 징계를 주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징계하는 비율이 11.0%나 나타나고 있어, 성희롱 피해자가 성희롱 피해로 인해 회사로부터 불이익한 조치를 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적극적인 성희롱 피해 구제 시도를 했을 경우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당할 것을 걱정하여 피해를 감추고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답답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가 직접 경험한 성희롱 피해 이외에 자신의 사업장에서 있었던 성희롱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28%가 성희롱 문제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참고 넘어가는(41.6%) 방식으로 끝나는 경우 많았고,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15.4%에 달하고 있다. 회사가 어떻게 조치했는지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거나 징계조치' (6.7%),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주의를 주거나 징계조치' (8.7%),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해고' (8.0%)하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23.4%나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가해자에게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금하고 있는 관계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본 조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들의 성희롱 피해 실태는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이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화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성희롱 인식이나 피해 현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게다가 성희롱 피해를 입거나 이를 중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노동자들이 성희롱 피해로 인한 2차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성희롱 예방과 금지를 위한 정부 정책이 보다 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희롱 가해자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표1〉 성희롱 유형별 피해 경험 빈도

	유형	전체(%)	여(%)	남(%)
언어적	나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를 들었다	31.9	35.8	22.4
	음담패설을 들었다	43.5	43.5	45.2
	성적인 욕설을 들었다	17.9	16.9	20.1
	상대방이 자신의 성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24.3	24.1	25.8
	나의 성경험에 관해 질문하였다	15.2	12.7	22.7
시각적	나의 성경험에 관해 질문하였다	15.2	12.7	22.7
	불쾌한 시선으로 나의 신체 특정 부위를 쳐다보았다	24.3	29.4	11.8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17.3	17.0	18.6
	누군가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것을 보았다	11.5	12.7	8.6
신체적	나의 손, 가슴, 엉덩이, 성기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	19.9	23.7	10.8
	업무를 핑계삼아 나에게 몸을 밀착하였다	18.4	21.9	9.3
	나에게 키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다	10.2	11.9	5.8
성적서비스형	희식, 아유회 등에서 옆에 앉거나 술을 따르라는, 혹은 불투스를 추라는 강요를 받았다	33.2	40.4	14.2
	인마나 애무를 강요받았다	5.5	5.9	4.5
	강압적인 데이트 신청, 근무 외의 사적인 만남을 강요받았다	6.0	7.1	3.5
	성관계를 강요받았다	1.3	1.1	1.8
성별기반	할머니, 아줌마, 0양, 0야, 미소0 등의 호칭을 들었다	67.9	67.9	-
	여직원에게 외모나 여성의 역할(청소, 설거지, 다과준비 등) 그리고 결혼이나 기사를 강요하는 말을 들었다	44.9	44.9	-
	여성의 능력과 업무를 비하하고 무시하는 말을 들었다	48.1	48.1	-

〈표2〉 성희롱에 불쾌감을 표시했을 경우 상대의 반응

	그런 행동을 멈추었다	여전히 그런 행동을 하였다	오히려 더 심한 행동을 하였다	성희롱을 멈추었으나 다른 방식으로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나의 직장 생활에 불이익을 주었다	계
전체	42.8%	32.7%	0.6%	20.1%	3.8%	100%



# 사이버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사이트운영자 교육

김영정 (본상담소 정보사업부 부장)

지난 10월 18일 한국성폭력상담소 교육실에서는 “제1회 사이버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사이트운영자 교육”이 개최되었다. 이날 교육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포털 사이트, 동창회 사이트, 여성포탈 사이트, 게임 사이트, 채팅 사이트 운영업체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5개의 강의를 수강하였다.

지난 몇 년간 급속도로 인터넷 사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이버성폭력이 신종 성폭력으로 문제되었다. 사이버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용자들 스스로 건전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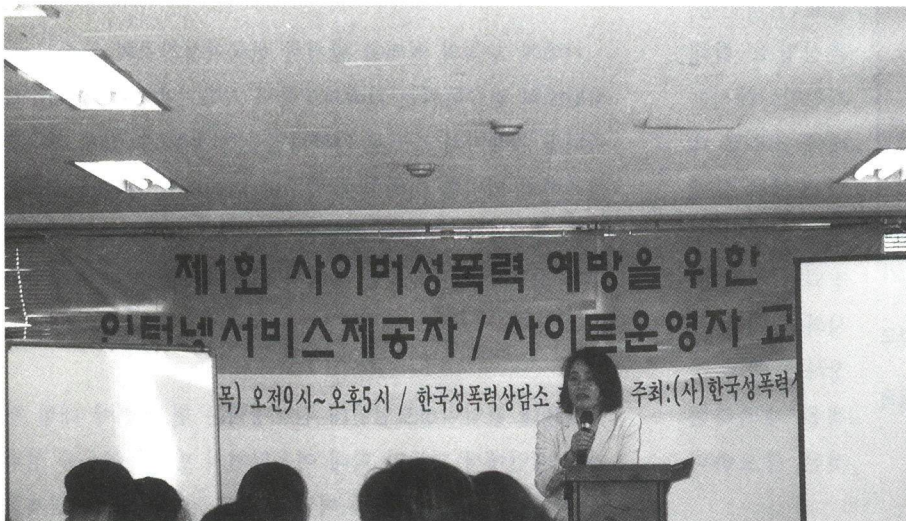
그런데, 이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사이트 운영자이다. 사이버성폭력은 개인 홈페이지를 비롯한 어떤 사이트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

기대를 충족시키는 업체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규정을 약관에 명시한 곳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기능은 있으나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고도 신고기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1회 사이버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사이트운영자 교육이 기획되었다.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나누어야 할 이야기를 하루 일정에 다 담기란 어려웠지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문화와 여성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사이버성폭력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는 것으로 오전 강의를 시작하였다. 오후 강의에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사이버 성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과 기술적인 대응 방법에 대하여 일선 경찰과 변호사의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의 담당자가 실제 운영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공유하는 시간도 있었다. 업체 담당자들은 주로, 기술적 방법으로는 차단할 수 없을 만큼 갈수록 지능적이어지는 가해수법과 정보제공업체의 인력부족 등을 토로하였다.



므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 모두는 사이버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의 경영자들과 실무자들은 자신들이 개설한 공간에서 사이버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예방과 사후처리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업체의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약관, 신고기능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우리의

사이버 성폭력 추방은 한 두 사람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법 집행기관, 사이트 운영자, 개별 커뮤니티의 성원들, 그리고 네티즌 모두가 평등한 사이버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사이버 공간의 성 불평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자율적인 규약을 만들어 나가는 동안, 사이버 세계는 여성이 훨씬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학내 성폭력관련 정책 공청회

임민희 (본상담소, 인권부 부장)

본 상담소에서는 10월 17일 1년간 조사와 연구를 통해 대학내 성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공청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대학내 성폭력상담소 관련 실무자들, 대학내 여성주의자들과 사회단체 활동가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그동안 대학내 성폭력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기다려왔음을 99년 이후 공청회 이후 2년 만에 마련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공청회의 시작에서는 최영에 소장의 발제를 통해 대학내 성폭력 실태를 본 상담소에 접수된 상담을 분석하여 제시하였고 정책마련의 방향성을 논하였다.

가해자와의 관계	상담건수(상담 횟수)
교수/강사	34(53)
선후배	42(57)
동기	26(33)
교직원	4(5)
기타	6(20)
합계	112(158)

대학내 성폭력 학칙에 대한 검토(안박은정, 본상담소 학내 지원팀)에서는 대학 스스로 대학내 성폭력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는 사건 조사와 처리를 보장하는 공식 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 피해자, 가해자 모두 같은 학교 소속인 경우를 기준으로 함
- \* 2000. 1~2001. 6 (전체 상담 4512건 중 112건으로 2.5%)
- \* 기타관계에는 교수나 교직원에 의한 직원의 성폭력, 여자강사의 학생에 의한 성폭력이 포함

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채택은 면밀한 검토와 구성원 간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학내 구성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실효성있는 학칙' 이어야 함을 전제로 하여 학칙 조항 중 학칙 제정의 목적, 성폭력의 정의, 학칙의 적용범위(대상),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상담소 설치, 운영위원회, 시효와 처리시한, 징계에 걸쳐 학칙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였다.

대학내 성폭력 상담소 운영사례에서는 개소한지 1년이 되어가는 서울대 성폭력상담소 김계현 소장의 발제로 서울대

의 성폭력 관련 학칙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현재 서울대 성폭력상담소는 한 명의 정규직 상담원을 둘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아직은 기초적인 예산, 인원, 시설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교육부, 여성부, 여성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의 필요와 공동으로 대학내성폭력예방 교육자료를 개발할 것을 제언했다.

대학내 성폭력 사건의 조사에 대한 발제(임민희, 대학내 성폭력상담소 외부조사위원)에서는 대학내 성폭력 사건의 조사에 대해 조사위원회의 구성부터 징계와 후속조치까지 조사에 관련한 세부사항을 다루었다. 무엇보다 성폭력 학칙상 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체계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조사위원에 대한 교육이 필수임을 역설했다.

가해자 교육의 의의를 발제한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의 권수현씨는 가해자교육이 가해자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 가해자가 스스로 가해자임을 인정할 수 있게 해주고 성폭력의 의미를 이해하게 해주며 피해자의 피해에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것은 상담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한다고 하였다.

서울대 관악여성모임연대 김보명씨는 현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에서 그동안 학내 여운단위의 반성폭력운동 성과와 학내 상담소의 성과를 어떻게 서로 잘 공유하고 관계를 맺어갈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1년 간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시행착오나 시스템 상의 공백에 대해 짚어내고 그에 대해 규정과 원칙을 세워나갈 것을 제안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신현옥 여성정책담당관은 현재 학칙이 제정된 학교는 352개 대학 중 253개 대학으로 71.9%가 학칙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내 성폭력 등 예방교육 실시 및 성폭력 발생시 처리상황 등에 대한 지

속적 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성폭력 예방 관련 운영 현황 등을 대학의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번 공청회의 의의는 무엇보다 학칙에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시킨 것과 상담소를 설치하였다해도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 학교들에게 예시와 정책 제언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보호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상을 가지도록 촉구한 데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학내 여학생자치단위와 대학내 성폭력 상담소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대학내 성폭력상담소의 방향과 정책 실행에 대한 모니터가 이루어지고 대학 당국이 피해자 권리 보호의 든든한 주체로 자리잡게 되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상담소는 2001년 하반기 서울 소재의 4년제 남녀공학 대학 10곳을 선정, 1000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대학내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정책인지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대학내 성폭력에 대한 인식조사의 설문 결과의

### 요약 및 제언

**연구자 : 임민희, 안박은정 (본 상담소 학내지원팀)**

설문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대학내 성폭력의 심각성이다. 성폭력의 특성상 피해자가 익명의 경우라도 자신의 경험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성 응답자중 28.1%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은 대학내 성폭력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 현상인지 드러난다. 특히, 목격한 경우와 피해 경험을 합한다면 100%가 넘는 응답율을 보이고 있어 이미 대학내에서 성폭

력의 문제는 특정 개인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내 성폭력에 대한 학칙제정이 대학내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있어 일정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측면을 끼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총여학생회 등 여성운동 단위가 학칙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대학일수록 성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다는 사실은 학내 성폭력의 인식 전환에 있어서 대학내 여성운동단위의 노력이 상당히 작용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학칙이 제정된 학교나 그렇지 않은 학교 모두 대응하지 않는 경우나 개인적인 대응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학칙이 대학의 실제 생활속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근절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더욱이, 많은 경우 대학내 성폭력 담당 기구에 대한 인식과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응답 결과는 앞서, 성폭력 인식에 있어 학칙이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가 학칙에 대한 신뢰도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설령 학칙의 제정이 구성원의 인식에 일정정도 영향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학칙의 실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너무나 손쉽게 무력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의 판단기준으로 '동의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에서부터 어떠한 행위를 성폭력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까지 성폭력의 인식에 있어 성별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끝으로 한가지 더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복학생의 성폭력 인식이다. 전체적인 응답에 있어서, 성폭력에 대한 인식 전반에 걸쳐 군복무 경험이 있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상당히 낮은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특히, 대학내 성폭력에 있어, 선후배간의 성폭력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때문에, 군대에서의 경험이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후 성폭력 정책 마련에 있어 복학생의 인식을 제고할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성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의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학칙이 본격적으로 제정되기 시작한지 1년 여가 되어가고 있지만, 학칙 제정 여부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응답율은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학칙이 제정되었다는 것을 아는 응답자의 경우도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많았고, 학칙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아직까지 성폭력 학칙이 대학 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정책의 홍보와 인식'도 자리잡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칙 제정과 함께 구체적 예방 활동이나 학칙 홍보 작업 없이는 학칙의 시행이 구성원들에게 전달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학칙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 진다고 해도, 그것이 학칙을 지키고 시행하려는 의지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본 설문문의 응답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제정된 학칙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사건의 처리와 예방 모두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학칙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함께 학칙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총여학생회등 학내 단위들이 활발한 학교일수록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학칙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학칙의 시행이나 정책 마련에 있어 총여등 학내 여성운동 단위와의 연계성은 효과적인 성폭력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대학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학 당국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 상당수의 응답자가 모든 항목에 있어서 대학의 책임을 지적하였다. 대학내에서 직접적인 교육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력이 아닌 경우도 성폭력 사건은 대학의 책임하에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학칙이 비단 교육관계에 의한 성폭력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학습권에 심대한 영향을 주거나, 대학의 성폭력적인 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다양한 성폭력을 포괄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 대학내 성평등문화가꾸기를 위한 공모전 - 여학생휴게실의 기능전환을 위한 공모전

대학에서 많은 경우 여성 억압적인 교육과 문화를 거쳐 성장한 여학생들은 대학의 남성 중심적인 문화 속에서 남성과 똑같이 대학 공간을 자유롭게 누리지 못한다. 여성들은 끊임 없이 '여성다움'에 대한 사회적인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는 여성자치단위 등을 통해 여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몇몇 대학은 여학생 휴게실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학생 휴게실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그나마 확보되어 있는 공간도,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전혀 갖추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시피한 상황이다. 때문에 여학생 휴게실의 수적 증가와 환경개선은 여학생 휴게실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여학생 휴게실은 단순히 쉬는 공간의 의미를 넘어선다. 여학생 휴게실은 단지 여성들에게 차별적인 환경으로부터 도피하게 하는 장소가 아닌, 지속적으로 여성들의 목소리를 내고 공간을 확장시켜가는 출발점으로써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한다. 이 곳은 여성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 속에서 새로운 여성문화를 창출해나가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여성에게 차별적인 대학과 사회 일반에 문제제기할 수 있는 곳으로 의미화될 때 그 가능성은 더욱 넓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상담소는 11월 2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여학생휴게실에 서 '여학생휴게실 기능전환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하였다. 각 대학의 여학생휴게실 운영실태를 사진과 글로 정리하여 전시하고 성폭력에 관한 정보와 여학생휴게실과 새터 관련 공모전 수상작들을 전시하여 오랜만에 여학생휴게실이 여성들의 이야기로 둘러싸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 글을 읽어보시는 분들도 주변의 공간이 얼마나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여성들의 목소리를 차단하는지 다시 한번 다른 눈으로 둘러보시길 권한다.



# 전쟁과 여성

김 엘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정책기획위원)

전쟁이 터졌다. 굉음과 불덩어리 속에서 힘없이 무너진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에서, 곧 이어진 부시의 보복 전쟁 선포와 이를 위한 세계 동맹 결의에서 죽임과 폭력의 악순환은 시작되었다. 미군의 지상군 투입이 성공적이라는 내용과 함께 20명이 사살되었다는 보도도 잇따른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죽는 전쟁에서 무엇이 성공적이라는 것인가? 이미 20세기의 많은 무력갈등의 경험을 통해서 전쟁 피해자의 95%가 민간인이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터인데, 아무리 미국이 탈레반 정권과 아프간 국민을 분리시키고 아프간 난민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해도, 미군의 대테러 전쟁은 군사적 행위의 살상일 뿐이다. 최근 일부 외신은 아프카니스탄의 민간인 천명이 사살되었다고 추측하는 가운데, 아프카니스탄 잘랄라바드 부근 한 마을에서만 200명이 숨진 것으로 보도되고 그들이 주로 여성과 어린이라는 점<sup>1)</sup> 미국에서 숨겨간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평화의 갈구를 무색케 하고 있다.

전쟁 난민의 80% 이상이 여성과 어린이라는 엠네스티 여성인권보고서는 전쟁이 더 이상 여성들과 무관한 남성들의 일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아프카니스탄 여성혁명연합의 인터넷 사이트는 아프카니스탄의 내전에서 남편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은 비비라는 40대 난민 여성과 탈레반군에 의해서 인신매매되어 이미 결혼 남자 밑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지바 소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sup>2)</sup>

남자의사를 접견해서는 안 되는 금지령 때문에 병에 걸려도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아프간 여성들, 국경을 무사히 넘어가는 조건으로 강간을 당해야만 했던 이디오피아의 여성들, 이 모든 여성들의 곤궁한 삶은 '여성' 이기에 더 악화되어간다.

전쟁이 어떻게 여성의 성(sexuality)을 통제하는가하는

점은 '우리(us)'와 '타자(others)'를 구분하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에 기초한다. 전쟁과 군대가 성립되고, 존속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다른, '타자'로서의 적(enemy)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우리'라고 하는 동일한 범주의 정체감을 가진 집단이 '우리'와 이질적인 집단인 적을 상징하여 흑색선전과 함께 적대감을 창출하면서 대립과 분리를 끊임없이 조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여성은 남성과 다른 타자로서 이차적 존재로 주변화되고,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을 이유로 전쟁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집단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전쟁은 남성이 국가방위의 주체자로서 여성을 보호해야한다는 신화를<sup>3)</sup> 창조, 강화시키고 전투에서의 적의 정복은 극단적 남성성의 표출로서 장려된다. 또한 전쟁은 여성을 좋은 여성과 나쁜 여성으로 구분하여 취급하는 한 기제가 된다. 남성들이 보호해야 할 '우리'의 좋은 여자가 있다면, 강간을 해도 좋고 물건처럼 다루어도 되는 나쁜 여성 즉, 적의 여성이나 매매춘 여성들이 있다.

우리는 전쟁시이나 평상시에 이러한 전쟁의 메카니즘 속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목격한다. 지난 보스니아의 전쟁 때, 강간이 적의 종족 말살이라는 군사적 전략으로서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었다.<sup>4)</sup>

적이 보는 앞에서 적의 아내를 강간하고 다른 종족의 아기를 갖게 하는 고의적 강간은 동티모르 독립투쟁운동의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인도네시아 군부는 동티모르의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 매 6개월마다 동티모르 여성들에게 불임을 위한 강제 주사를 주입함으로써 여성의 성과 출산권을 통제할 바 있다.<sup>5)</sup>

전쟁과 여성문제와 관련하여 눈여겨보아야 할 또 다른 점은 전쟁담론이나 국가안보담론이 성별화 되어(gendered) 있다

주1) 한겨레신문 10.12일자

주2) www.rawa.org.

주3) 피치는 이러한 보호의 신화가 사회로 확대되어, 사회생활에서도 여성들은 약한 성적 존재로서 강한 남자에게 보호받아야 하고 남자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신화로 강화되고 있다고 말한다. Peach L. J. "Gender Ideology in the Ethics of Women in Combat," in J. H. Stiehm, ed., It's Our Military, Too!: Women and The U.S. Military,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1996, p.162.

주4) Vesna Nikolic-Ristanovic, "War and Violence Against Women," in The Gendered New World Order: Militarism,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J. Turpin and L. A. Lorentzen ed., NY, London: Routledge, 1996, p.202.

주5) Ines Almeida, "티모르 여성: 모든 난관에 대한 투쟁," 21세기 평화와 여성운동 여성 평화 화해 국제여성평화화심포지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주최, 1997. 6, p.37.

는<sup>6)</sup>점이다. 전쟁과 관련된 어떤 것을 말할 때, '정복, 강인함' 과 같은 이야기들은 남성적인 것으로 고려되면서 칭송되어지는 반면, '동정, 약함, 패배' 와 같은 이미지들은 여성적인 것으로 비유되면서 하찮은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면, 걸프 전쟁 때, 언론이나 정치가들이 표현한 말들을 보면 공격은 강간으로, 군사작전은 성행위의 방식으로 은유되고 있다: "평화를 위한 전쟁은 순결을 위하여 씹하는 것과 같다 (Fighting for peace is like fucking for virginity.)", "진짜 남자는 일찍감치 빼는(철수) 것이다 (Real Men pull out early.)", "전쟁은 자지(침입)이다 (War is a dick thing.)"<sup>7)</sup> 쿠웨이트의 강간<sup>8)</sup>

이러한 군사적 은유는 단순한 말의 기교가 아니다. 이는 어떻게 여성과 남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남녀관계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를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단순히 국제관계의 국가간의 정치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 은유가 사용되고, 확산되면서 여성의 차별성과 남성의 폭력적 공격성에 관한 사고방식이 사실화, 내면화된다는 점에서 성(gender)의 정치성이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쟁의 폭력성은 단순히 전쟁시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삶에서의 가부장적인 성 차별성, 남성의 성폭력 등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부시의 대 테러 전쟁 선포 이후, 여성단체들은 군사대국화의 재기를 노리는 강대국들의 움직임을 경고하여왔다. 세계 군사화는 단순히 무기생산이 증가하고, 군사력이 강화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이는 적(타자)과 아군의 대립적 구도에서 군사적 힘의 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남성성이 강화되고, 군사주의를 받쳐주고 있는 가부장적 구조가 공고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군사적 전쟁이라는 가시적 폭력성이 일상적 삶 속에서 나타나는 물리적 또는 사회구조적인 폭력성과 같은 맥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통합적으로 인지할 때,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열풍을 예리하게 볼 수 있다.

911 참사 후, 미국 부시정부는 반테러법 2001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문제는 소수 종족 탄압의 목인이 미국 보복전쟁 동맹에 참여하는 대가로 거래되고, 세계화의 반 자본주의의 감정이 고조되며, 인종차별이 심화되는 지점에서 누가 테러리스트로 지목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미 대 테러전쟁의 세계적 부산스러움 속에서 911 참사가 군사안보의 강화와 함께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한 구실로, 공격으로 확장되는 상황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 제리 폴웰스 목사는 9월 13일, 미국 기독교방송네트워크에서 진보적인 사회그룹과 페미니스트, 동성연애자들 때문에 911 참사가 발생했다고 거칠게 연설하였다. 이에 미즈 잡지사의 흑인 여성인 마르시아 앤 길레스피는 '테러는 가난과 빈곤에서, 여성혐오와 인종주의에서, 광신에서, 그리고 억압적인 경제, 사회, 정치적인 상황과 제도에서 자라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흑인공동체를 파괴하려는 린치들, 폭동, 여성에 대한 폭력 등으로 여성들은 일상적 삶에서 항상 테러의 위협과 함께 살고 있다고 꼬집었다.<sup>9)</sup>

전쟁은 탱크와 총알의 난무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사회에서 너편, 내편 가르면서 경쟁하고,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그 폭력성에서 죽이고 죽는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전쟁판에서 여성들은 누군가를 죽이면서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감을 갖고 함께 느끼고 나누는 가운데 평화적 감수성과 상생적 지혜를 고양시킬 때이다.



주6) Cohn C. "Wars, Wimps and Women: Taking Gender and Thinking War," in Gender War Talk, M. cooke and A. Woollacott ed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주7) Feinman I. R. "Women Warrior/Women Peace Makers: Will the Real Feminists Please Stand Up!," in L.A. Lorentzen and J. turpin eds., The Women & War Reader, NY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8, p.132.,

주8) (Rape of Kuwait)Nagel J. "Masculinity and Nationalism: Gender and Secuality in the Making of Nations", Ethnic and Racial Studies, 21(2), 1998, p.258.

주9) www.feechal.com의 여성과 사회 커뮤니티에 실린 글입니다.

# 어린이에 대한 성착취를 반대하는 국제회의에 다녀와서

한정화 (본상담소 지킴이)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방콕의 UN빌딩에서 있었던 이 회의는 어린이의 상업적 성착취를 반대하는 목적의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두 번째 국제회의(12월 13-16일, 일본 요코하마)에 대한 준비모임이었습니다. 첫 번째 회의는 1996년 스톡홀름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ECPAT international) CHILD PROSTITUTION, CHILD PORNOGRAPHY & TRAFFICK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일본정부, 그리고 각 나라의 NGO 들이 모여서 각 나라의 상황과 효과적이었던 대응책을 나누고, '협력, 예방, 보호, 회복과 재통합, 어린이들의 참여' 5개 분야에 대해 세부활동을 계획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가져온 영어로 된 책자에 있습니다. ^^) 저는 이 회의에 Young People의 자격으로 ECPAT의 지원을 받아 다녀 온 것이지요. 한국에는 ECPAT이 없고,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무관심하여 Young People의 단 한 명이라도 참여하길 바랬다고 하더군요.

회의하는 첫날, SEX TOURISM(섹스 관광)을 주제로 한 연극을 봤습니다. 작은 어린이를 납치해서 성산업의 노예로 삼고, 청소년들은 부모의 목인 아래 성매매를 하고, 관광객들은 돈을 뿌립니다. 부모가 자식의 옷 속



에 있는 돈을 가져가며 안쓰럽지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떠날 때의 장면이 기억에 남는군요. 섹스 관광으로 유명한 화려한 태국의 이미지 뒤에는 생존의 문제로, 가족 부양의 의무로 성을 착취당하는 나이 어린 사람들이 있지요.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특히 열악한 위치에 있는 어린이와 여성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한정되어 있겠



지요. 전에는 인권을 논하는 국제회의를 보면서 선진국의 기준으로 불공평하게 부가 분배된 상태에서, 다시 그들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나라들의 인권을 논한다는 것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우스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 생존의 방책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원인의 제공자가 그것에 대하여서는 침묵하고 있으니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직접 참여하고, 연대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NGO들이 정부에 가할 수 있는 압력에 희망을 걸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화장실까지 쫓아가서 정부관계자의 서명을 받는 나라도 있다는군요. 한국에서 가까운 나라...


여성의 흡연에 대해 일본 ECPAT에서 일하시는 '준표'라는 분과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숨어서 담배를 피운다고 하나, 그 분이 '우리는 왜 안돼냐?! 우리가 할 수 없으면 너희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더군요. 항상 남성들이 할 수 있으면 여성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는데, 여성들이 할 수 없으면 남성들도 할 수 없다는.... 표현은 거의 비슷하지

만, 의미에서 생기는 큰 차이가 잠시 생각을 멈추게 했지요. 또 한 번은 방을 같이 쓰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친구 '나탈리아' 와 같이 담배를 피우는데 제가 가만히 서서 피우니까 매우 이상스럽다면서 어색해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복도를 걸어다니며 폈습니다. 습관이 무서운지라 별로 편하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주로 쓰레기통 옆에 앉아서 폈습니다.^^ 나탈리아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NGO에서 일하는 친구였는데 같이 산책을 하다가 장애인 거지를 보자 담배를 권하며 얘기를 오순도순 나누는데 그 모습에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애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 그 친구는 자기 방식의 답을 보여주었을 뿐인데 저는 참 인상적이더군요.

태국을 떠나기 전 날 밤에는 자유시간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환락가 Patpong에 섹스관광의 현장을 목격하고자 갔습니다. 우리나라의 남대문 시장과 같이 쇼핑을 할 수 있는 길 좁은 공간이 있고, 좀 들어가면 여성들이 벌거벗고 춤을 추는 바들이 있고, 그 곳을 지나면 무수한 여성들이 비슷한 옷을 입고 거리에 앉아있는 술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빼끼들이 메뉴판 같은 것을 주는데 얼핏 보니 체위별 가격이 적혀 있더군요. 남성들은 직접 나와있지 않고, 들어가서 원하는 모습으로 주문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한 번도 성매매를 하는 밀집지역-한국에서는 지역적으로 차단되어 있지 않나요?-에는 가 본 적이 없었는데 같은 여성으로서 왜인지 제가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굉장히 많은 수

의 여성들이 무언가를 기다리며 망연자실 앉아있는 모습이 서글펐습니다. 참고로, 그 곳에서 한국인을 종종 봤는데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외국인들이 북한과의 외교문제나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를 묻더라구요. 또한 한국의 전통에 대해서, 뭔가 한국적인 것에 대해서 어찌나 많이 묻는지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태생적 정체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왔습니다. 늘 내 자신의 선택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품고 있는데 말이죠.... 그럼, 이만...

12월에 일본 요코하마에 다녀온 깨몽편을 기대해주세요요. 룰루루루루 ^^\* 



### - 깨몽, 태국에 다녀오다 -

만으로 22살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나이에 딱 걸려서 갑작스럽게 태국에 가게 되었지요. 그 동안 24살이라고 우겨왔었는데 나이 많은(?) 친구들한테 밝혀져서 잔뜩 야유를 받았습니다. 교생실습 끝난 직후에 그 피곤을 짊어지고 홀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국제회의라 하여 통역관이 있을 거라 예상을 했지요. 그러나, 5박 6일 동안 언어는 오로지 영어뿐이었습니다. 머리를 굴리지 않고도 대화할 수 있는 한국말이 무척 그리웠습니다. 오호호 첫날, 태국 공원에서 데리러 나온 사람을 찾지 못하여 호텔까지 택시를 타고 갔는데 바가지 요금을 썼습니다. 태국에 가서 택시를 타시거든 절대 응정하지 마시고, 미터기로 가자고 하셔야 합니다. 쫓쫓, 관광안내 책자에도 나와 있는 것을... 택시기사가 쩌더러 짜꾸 '유 이뿐? 유 이뿐?' 하길래 어디서 에쁘다는 말만 배워서 짜꾸 써먹나 싶었으나 '이뿐'은 태국말로 일본인이란 뜻이었습니다. ^^; 또한, 물건을 사실 때는 반값을 불러도 끈기있게 기다리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물건값을 너무 파은 것이 아닌가 약간의 미안한 맘도 들어요.^^



# 이런 일을 했습니다.

## 상담부

제 17기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이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진행되었습니다.

54명이 수료했고 현재 12명이 실습을 거쳐 자원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10월 18,19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시설종사자들과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활동가, 개인 및 집단상담을 담당하는 상담자들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심화 워크숍이 실시되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실시후 효과성과 문제점을 토론하였고, 활동가의 소진을 막고 재충전할 수 있는 재교육의 기회와 현장에서 보람과 고충을 나누며 네트워크 형성과 정보교류의 기회를 가졌다.

11.16 2차 강남지역 성폭력·가정폭력 관련기관 간담회지나 6월에 실시된 관련기관 간담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그동안 연계, 또는 지원하였던 사례들의 성과와 문제점을 함께 나누는 간담회가 본 상담소 교육실에서 진행되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지역 경찰관, 의료기관, 시설, 복지관,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119 구급대의 담당자가 참가하였다.

## 정보사업부

사이버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매뉴얼 발간  
자유롭고 평등한 사이버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반드시 없애야할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성폭력의 개념, 유형, 원인, 대응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매뉴얼은 책자 "Delete! 사이버 성폭력", 팜플렛 "Delete! 사이버성폭력", CD "Stop! 사이버성폭력" 세 종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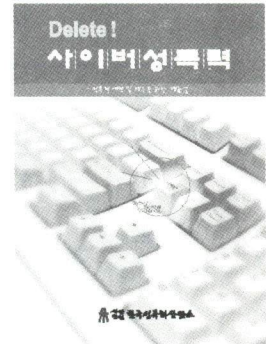
## 기획홍보부

① 회비납부방식으로 CMS를 도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담소의 회비납부 방식은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내야하는 지로납부나 은행에 본인이 이체를 신청해야하는 수동적인 자동이체방식이었으나 이번 CMS 도입으로 회원들께서는 회비를 좀더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고 상담소는 안정적인 회비수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CMS 도입은 상담소가 회원단체로 있는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금융결제원과 협조하여 프로그램개발 등 초기비용을 부담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소는 이에 동참하는 형식입니다.

상담소는 8월부터 CMS 안내문을 회원여러분께 발송하였으며 신청자를 접수받아 10월부터 CMS 납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② 상담소 회원확대의 일환으로 후원회원안내 및 신청서를 브로셔로 제작하였습니다.



## 성폭력문제연구소

2001. 10. 25 직장내 성희롱 2차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노조, 여성단체, 여성부, 노동부 정책 담당관 등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성희롱 2차 피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를 방지할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했다.

2001. 11. 7 직장내 성희롱 상담원 양성을 위한 노조 활동가 교육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 활동가와 간부를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회사에 성희롱 피해 상담 및 고충처리를 담당할 인자를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했다.

## 성평등교육문화센터

2001년 초등학교 성평등 의식 및 성교육 연수

초등학생들에게 성평등 의식을 길러주고 올바른 성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1년 초등학교 성평등 의식 및 성교육 연수를 실시하였다.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7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실시된 이번 연수에는 교육대학생과 초등학교 성교육에 관심있는 일반인 40여명이 참여하였다.

제 4회 성교육·성상담 교사연수

성평등교육문화센터에서는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제 4회 성교육·성상담 교사연수를 진행하였는데,

청소년 성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와 일반인들 40여명이 참여하였다. 강사님들의 열정적인 강의와 더불어

토론시간에는 자신의 성인식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가운데 성교육자로서의 자세를 다지는 귀중한 시간들을 가졌다.

#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자료 목록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자료를 회원·후원회원에게는 20%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주 제	분 류	자 료	가 격
성폭력 일반	소책자	성폭력에 대해 알아야 할 몇 가지 것들 : 예방과 대처(1998)	2,500
	지침서	성폭력에 관한 법률 지침서(1997)	2,500
		성폭력에 관한 의료 지침서(1997)	500
		피해자를 위한 성폭력 진료 및 수사(2000)	2,500
	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2주년 기념자료집(1993)	4,500
		성폭력특별법 적용실태와 개정방안(1996)	4,500
		국내외 성폭력 연구동향 및 지원체계(1997)	4,500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현황과 과제 : 열림터 개소 5주년 기념세미나(1999)	5,500
		성폭력사건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경찰 간담회(1999)	4,500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자료집(2000)	8,500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자료집(2001)	9,500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원 심화 워크샵(2000)	4,500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과 연계망 형성을 위한 워크샵(2000)	6,500
		성폭력·가정폭력에 관한 의료진 워크샵(2000)	8,500
		성·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찰교육(2000)	6,500
		간호사와 함께 하는 가정폭력·성폭력에 관한 워크샵(2001)	4,500
		경찰과 함께 하는 성폭력·가정폭력에 관한 워크샵(2001)	4,500
		사이버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사이트 운영자 교육(2001)	2,500
		대학내 성폭력 관련 정책 공청회(2001)	4,500
청소년 관련	자료집	청소년 성문화를 통해본 성폭력실태 및 대책(1996)	4,500
		건강한 청소년 성문화 창출을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 : 성문화와 성폭력 300에 미치는 음란물의 영향(1997)	4,500
		십대의 성산업 유입과 남성 성문화 : 제6차 IMF시대 향락산업으로부터 딸·아들 지키기 연속 토론회(1999)	4,500
		'99 성교육·성상담 교사 연수(1999)	8,500
		'2000 겨울방학 성교육·성상담 교사연수(2000)	8,500
		'2001 여름방학 성교육·성상담 교사연수(2001)	6,500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성교육(2000)	8,500
		UP Grade 섹스북(2000)	4,500
	5개 대상별(미취학-고등학교)성교육 프로그램 및 성교육 그림자료(그림자료만 구입시 4,500)(2001)	11,000	
비디오	너 무슨 생각하고 있니?(1998)	20,000	
어린이 관련	지침서	안전하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 어린이성폭력예방지침서 - 부모와 교사용(1996)	2,500
	자료집	초등학교 성평등 의식 및 성교육 연수(2001)	6,500
직장내 성희롱	지침서	당당하고 자유롭게 일하는 여성 : 영업직 여성을 위한 성폭력 예방지침서(1998)	2,500
		새로운 직장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 일반직원 및 관리자를 위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서(1999)	3,000
미디어 관련	자료집	21c 여성미디어운동센터 발족기념식 및 발족기념 토론회(1998)	4,500
		포르노/미디어/여성 : 21c 여성·미디어 운동센터 발족 1주년 기념토론회(1999)	4,500
		스포츠에서의 성차별적 관행 개선을 위한 토론회(2000)	4,500
		영상제작 교사연수(아날로그 편집)(2000)	4,500
		영상제작 교사연수(디지털 편집)(2001)	4,500
		매체비평(포르노그래피) 교사연수(2001)	5,500

\* 섹스얼리티 강의(9,000원) \* 아주 특별한 용기 (20,000원) 동년출판사 [우송로 별도 청구]

\*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백서(상, 하) (40,000원) [택배 착불로 우송]

**상담소(열린터)에 물품을 기증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란, 안흥례, 이순옥, 조중신

**새로 오신 (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계경희, 김경선, 김동희, 김미숙, 김미옥, 김선택, 김소연, 김영경, 김지영, 김지윤, 김해경, 김혜정, 김희경, 박소연, 박지영, 박혜영, 배희진, 서미현, 손수경, 손이전, 손종성, 엄인숙, 오희선, 윤숙경, 이경은, 이덕화, 이도수, 이민영, 이현주, 장순복, 정신애, 진현숙, 최기홍, 허나윤, 홍만희, 홍성수, 황재호

**4월부터 9월까지 회비를 내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식 고순례 구나은 권주희 권혁건 김미경 김미숙 김연정 김영정 김윤경 김준호 김지선 김지혜 김춘복 김현란 김현식 남순열 노미순 노주희 류재경 문선경 문효진 민응기 박혜진 박귀자 박미라 박병헌 박신욱 박윤숙 박혜진 서민자 신상호 신은주 심수희 심창교 안흥례 오길향 오숙자 오숙희 오희옥 유은주 유자인 윤용미 윤지원 이경미 이경애 이근호 이명선 이백수 이소진 이애란 이영분 이은정 이효숙 임민희 임순영 임종은 임태식 장연집 장윤경 장철우 정남운 정옥분 조영황 조중신 지인순 최동석 최영애 최용득 하은주 한완수 홍승아 홍은정

**4월부터 9월까지 후원회비를 내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정남 구민지 김경희 김미경 김미옥 김선희 김순형 김영애 김은정 김일륜 김정이 김진희 김혜숙 김화영 박미향 박선희 박준규 박진숙 배은경 서천석 설연자 송성애 신동한 육향순 유숙영 윤남희 윤정희 이상근 이선이 이승룡 이은정 이재인 이정아 이푸른메 임자영 전경림 정경란 정대현 정순복 조소영 주명희 주서현 최옥경 최지녀 한경숙 홍성복

**평생회원**

이미경 변혜정

**드디어 상담소도 cms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회비를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자원활동, 물품기증, 회비납부 등 다양한 모습으로 지원해 주시는 회원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상담소가 NGO로서 그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회비가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담소의 회비 납부 방식은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내야하는 지로납부나 은행에 본인이 이체를 해야하는 수동적인 자동이체 방식이었으며 더구나 타행인 경우 회원님께서 수수료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이제 회원님께서 회비를 좀더 편리하게 납부하시고 상담소도 재정적으로 안정된 회비를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자 CMS(cash management service)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CMS출금이체는 금융결제원이 은행의 협조로 회원의 계좌에서 약정하신 후원금만을 인출하여 상담소로 입금시켜주는 방식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576-5513(담당 : 기획홍보부장 박혜진)으로 전화주시시오, 전화로도 신청이 됩니다.

##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런 곳입니다.

1991년 4월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 이래 본 상담소는 지금까지 2만 6천여 회의 성폭력피해자들과의 법적·의료적·심리적 상담을 통해 내담자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였으며, 성폭력의 원인 및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인간중심적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켜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 여러분의 후원으로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는 상치를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주시면 상담소에서는 이를 소중히 받아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후원회원이 되시면 본 상담소의 소식지(나눔터)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상담소의 각종 행사에도 초대됩니다. 지금 전화하여 월 단위, 혹은 연 단위로 후원금을 약정하여 주십시오. (예금주 : 한국성폭력상담소)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린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 시설입니다. 귀하(사)가 기부하신 상금금액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에 의거하여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비는 자동이체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국민은행	009-01-1176-632
농협	037-01-194301
조흥은행	308-01-133092
중소기업은행	216-013179-01-018
한빛은행	309-042818-13-002
평화은행	025-01-0000-541
외환은행	224-22-02532-8
한빛은행	441-04-107528
신한은행	219-05-001717

문의 : 박해진 부장 / (02)576-7128

##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외부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예방과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외부 강연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직장내 성희롱" 관련법의 제·개정으로 각 기업 내 강연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강의 주제

성폭력 실태와 예방 /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 어린이 성폭력 / 직장내 성희롱 / 학내 성폭력 예방 및 성문화 / 성교육 지도자 교육 / 자녀 성교육 지도 / 유형별 성폭력 상담 방법

※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본 상담소에서는 강의와 더불어 상담소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비디오를 함께 시청하고 토론하는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 의뢰 문의 : 김연정 부장 / (02)576-7128

##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

성폭력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으로, 인권에 대한 유린행위입니다. 성폭력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함께 풀어가 줄 수 있습니다.

일반상담, 열림터 : (02)529-4271~2



본 상담소 심벌은 여성을 나타내는 우가 3개 모인 것으로, 이는 여성들이 손을 잡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힘을 모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쪽의 비스듬한 다리모양은 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해 여성들 스스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벌의 색깔은 '여성'과 '차매'를 상징하는 자주색입니다.

●이사 김삼화·문해란·박찬운·이명숙·이상엽·이은미·최영애·최보원·최은순·홍순기 ●감사 회계사/배자하 사무사차계능 ●자문위원 교육 교사/김성애·차옥덕 교육학/김인수·정유성·현기설 문학인류학/정병호 사회학·교육심리학/강영숙 저널리스트/박미라 윤리교사/백영애 청소년교육/이규미 ●법률 법학/한인성 변호사/강기원·고순례·김삼화·김의창·남성렬·박성호·박찬운·손명숙·이명숙·이백수·이유정·이향아·임종민·장경호·장철우·정성광·정연순·최은순·최현희·하일호 경찰/김강자·이금형 ●상담 정신보건사회사업가/오현숙 목회상담가/이재훈 임상심리상담가/전양숙 심리학/김순진·김정규·이윤로·이장호·이혜성·장연진·정남운 사회학/장영복 사회복지학/이영분·이원숙·한인영 상담심리학/권해수 ●의료 가정의학/김종구·정영숙 법의학/강신용·권일훈·문국진·서중석·이경룡·이운성·최영석·황적준 비뇨기과/이유식·이윤수 산부인과/김주필·김현식·김홍배·문영규·민용기·박근우·박종민·손인숙·윤경·이길여·이신애·이옥주·임용택·정경원·조삼생·조정현·최보원·홍순기 성형외과/정영덕 소아정신과/소은희·신의진·최보문·임태식 외과/오세민·주수호 예방의학/이홍호 임상병리학/강정옥·문해란 정신과/김광일·김병후·김정일·남정현·박수용·박진생·양장순·유재혁·이호석·윤영민이수경·전지홍·조맹제·최진숙 치과/이상엽 한의학/강명자·김영선·김효선·서은미·이은미 호흡기내과/천병태 흉부내과/안철민 ●재정 프리랜서/여난영 회계사/배자하·임종은 ●정보사업 통신/김형준·윤영민 ●홍보출판 신문방송학/김용숙·최선열 언론인/전여옥 여성학/박해란·오숙희 연극/김지숙 출판/권혁진·이인자 PD/고학관 조소/홍성도 ●21세기 여성 미디어운동센터 공동위원장/박경순 자문위원 신문방송학/강남준·강명구·김양희·김홍순·원용진·전석호 논설위원/지영선 ●부설 성폭력문제 연구소 사회복지학/이원숙 사회학/김준호·심영희 여성학/김은실·변해경·이재경·장필화·조주현·이미경·임순영 철학/이상화·정대현 심리상담가/권진숙 아동복지학/장화정 청소년연구원/김옥순 법학/김진옥·김엘림·신용자 사회심리학/김혜원 사회학/박진숙 ●소장 최영애